

# 영광 불갑사서 삼국시대 유물 나와 “백제불교 도래지 증명기회”

### 동국대 박물관 조사 대응전 기단석서 ‘모죽임’ 수법 석재 발견

전남 영광군 불갑사가 백제불교의 도래지일 가능성이 짙어졌다. 지난해 12월 3일부터 5차례 걸쳐 불갑사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 동국대 박물관(관장 장충식)은 대응전 기단석 일부에서 삼국시대의 탑 부재로 추정되는 석재들을 발견했다.

박물관에 따르면 새롭게 발견된 석재들은 각진 부분을 둥글게 깎아낸 ‘모죽임’ 수법이 완연하다. 이 수법은 삼국시대 석탑의 대표적 양식으로, 기단석의 각진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깎아내는 기법이다. 이에 따라 (삼국유사) 등의 문헌에만 의존했던 불갑사의 ‘도래지’ 설이 유구나 유물로도 증명될 가능성이 더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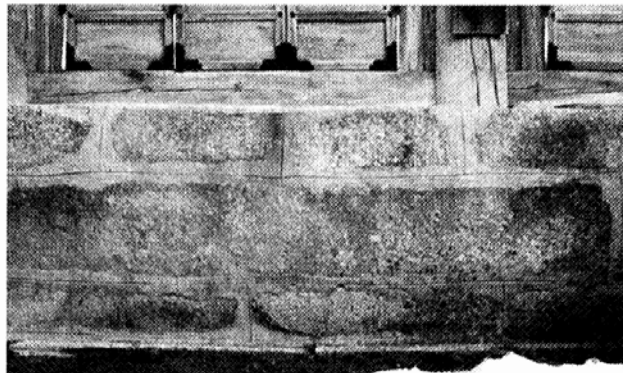
컸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법성포를 통해 영광에 들어온 마라난타가 384년(백제 침류왕 1년) 불갑사를 창건했다. 마라난타는 중국 동진을 거쳐 백제에 들어와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인물이다.

이와 함께 박물관은 이번 지표조사에서 불갑사의 규모가 지금보다 1천여평 정도 더 넓었음을 밝히고, 또 불갑사로부터 2백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려시대 관청이 들어섰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터 2 곳을 새롭게 발견했다. 이들 건물 터에서는 다양한 청자 파편들이 나왔는데, 인접한 곳에 관청이 있었을 만큼 불갑사의 사격은 대단히 높았을 것으로

박물관은 설명하고 있다.

고려 공민왕의 신임을 받았던 진각각사(1270~1355)가 불갑사에 주석할 당시 전각 100여칸, 승방 70여개 소, 요사 400여칸이나 되었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그러나 정유재란 때 크게 폐허해졌고, 현재에는 조선시대 중기 이후의 건축물과 유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외에도 박물관은 수도암, 불영대, 불해사, 전일암, 증지암 등 정유재란 직후까지 존재했던 불갑사 5대암자 터를 찾아냈다. 대응전 내벽에서는 17세기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까지 채색화’ 4점을 새롭게 발견했는데, 이 채색화들은 지금까지



◇불갑사 대응전 기단석 일부에서 발견된 삼국시대 탑 부재.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교수는 정유재란 이후 폐허된 사찰을 다시 세울 때, 주변에 흩어진 석재의 목재를 적극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신중탱화에 그려져 있었다. 이와 함께 박물관은 당우, 동종, 부도, 현관, 비석 등의 목사와 명문을 확인·실측했으며, 각종 문헌을 토대로 불갑사 사역 일대에서 유구를 채집하는 등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했다.

동국대 박물관장 장충식 교수는 “이번 지표조사는 불갑사에 대한 문헌상의 기록이 대부분 사실이며, 또 삼국시대의 ‘모죽임’ 수법이 사용된 탑 부재를 발견해 백제불교의 도래지일 가능성이 문헌이 아닌 유물로

밝혀졌다는 게 큰 의의”라고 밝혔다. 불갑사에 대한 지표조사 보고서는 8월경 발간된다.

한편 불갑사 일대에 대한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은 최근 전남도로부터 개발사업을 승인 받고, 이 일대의 토지 매입을 끝냈다. 이어 영광군은 올해 말까지 진입도로 등 각종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마라난타 동상을 건립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gobacou@buddhapia.com)



◇이태영씨는 연꽃을 조각품처럼 조형화·의인화해 카메라에 담아낸다.

## 蓮의 생로병사 보면서

### 이태영 ‘蓮사진전’...19일까지

아름다운 빛깔과 고고한 자태, 진흙에 물들지 않는 품성을 가진 연꽃에 삶의 의미를 부여한 사진전시회가 열린다. 사진작가 이태영(54 고도갤러리 대표)은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태평로1가 서울갤러리에서 ‘이태영의 蓮’ 사진전을 갖는다.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위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조계종에서 후원한다.

이씨는 ‘蓮’을 앵글 속에서 의인화해 생로병사를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도르르 말린 잎에서 갓 태어난 잎, 한여름 연꽃을 메운 초록잎과 붉은 꽃송이, 개구리밥과 물잠자리

향연은 인생의 불과 여름을 연상시키고 비바람에 찢긴 잎, 앙상하고 허리 꺾인 겨울 연은 삶의 고적함을 느끼게 한다.

‘이태영의 연’은 연꽃에 대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시각을 넘어 조각품처럼 조형화·의인화함으로써 회화적인 미감 위에 인생에 대한 작가의 관조가 묻어나온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대구, 전북 무안, 전남 강진에서 찍은 홍련과 백련 등 50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이씨는 연꽃이 피는 6~7월경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나 비개인 직후 혹은 여름이 밝아오는 새벽녘을 택해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이자 신라미술대전 추천작가인 이씨는 4차례의 개인전을 갖고 2권의 사진집을 발간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대구 최초로 사진전문갤러리인 ‘고토(古土)’를 개관했다.(053)427-5190 (02)2000-9736 이윤호 기자

## 봉정사 대응전 최고 목조건물일까

### 지붕공사중 상량문 담은 대나무통 발견 한달후 판독 가능...건립시기 밝혀질듯

경북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봉정사 대응전(보물 제 55호)에서 상량문을 담은 대나무통이 지붕 보수공사중 발견되면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이 바뀔지에 화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길이 21cm 직경 5cm인 대나무통은 2월 23일 대응전 서까래와 처마 사이에서 발견됐다. 현재 이 통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 중에 있으며, 보존처리가 끝나는 내달 초 순경이나 상량문을 판독할 수 있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또 대응전 내벽에서 반자 등 고려 중·말기 양식으로 추정되는 단청과 목조 구조 등이 8곳에서 발견돼, 상량문의 내용이 더욱 주목된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량문 판독에 앞서 적외선 촬영과 방사선 탄소연대측정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건축 연도 추정에 나설

예정이다.

학계에서는 지금까지 봉정사 대응전의 건립 시기를 놓고 ‘조선 초기’ ‘고려 말기’ 등의 엇갈린 주장을 제기해 왔다. 고건축 등 관련 학계에서는 대응전의 건축 양식을 고려해 ‘조선 말기’의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신영훈 씨 등은 (봉정사사적기)와 일부 목서를 토대로 ‘고려 말기’ 건립설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이장근(경주대·성보존위원회 전문위원)교수는 “대응전을 미리 짓는 게 사찰 건립 관행인 만큼 대응전이 현존 최고의 목조건물인 극락전(국보 제15호)보다 건축연도가 앞설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이번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자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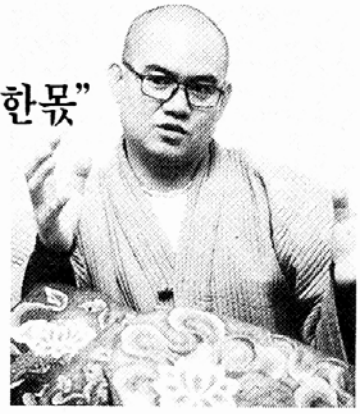
## ‘우리문화 세계알리기 한몫’

### ■‘전통기와 민화’ 작품화한 귀일스님 사찰에 버려진 옛 기와에 그림을 그려넣어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스님이 있다. 안동 봉정사 지조암 귀일스님이 바로 화제의 주인공.

82년 외성 고은사에서 출가한 스님은 그림에 대한 남다른 관심으로 자료를 수집하며 독학으로 그림을 배웠다. 1년전 우연히 사찰 구석에 버려진 기와장을 발견하고, 기와 그림을 창안해 내 상품화하기에 이른 것이다.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일반에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기와 그림을 제작했다”는 스님은 일반인과 외국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와 뒷면에 한글과 영어, 일어로 그림의 뜻을 적어 놓았다.

“귀면, 칠보문양, 호랑이, 십장생 등 단청물감으로 그려 넣은 100여점의 작품을 완성해 놓았다”는 스님은 “절마다 특색있는 문양들을 기와에 그림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장상, 비천상 등 불교상장물들도 조만간 그림으로 표현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귀일스님은 옛 기와에 그림을 그려넣어 문화관광상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불러 일으킬 생각이 있다고. 별걸이용, 받침대용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된 스님의 기와 그림은 조만간 서울 경주 제주 등의 유명호텔의 면세점과 토산품점 등지에 선보인다. 스님은 초파일을 전후해 서울 인사동 학교 제에서 ‘와당, 기와 그림’도 열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 불교TV ‘바로보는 동양학’ 동양철학 강의 봄 잇는다

흥미 위주에서 탈피, 동양학의 살아 있는 숨결을 진지하게 느낄 수 있는 TV동양학 강좌가 마련된다.

불교TV는 14일부터 6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전10시 20분에 유학과 불교 등을 총망라한 동양학 강좌프로그램 ‘바로보는 동양학’(담당PD 김충현)을 방영한다. ‘나를 다 시하는 동양학’의 저자인 박현씨(43)가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동양학이 21세기에 필요한 이유를 시작으로 동양학이 현대인들의 삶과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구수한 옛날 이야기식으로 풀어 나간다. 교재없이 주제만 정해 동양과 서양, 인문학과 자연과학 등의 예를 제시해 가며 철학적 강의로 진행될 이번 프로그램은 △동양학의 갈래와 역사 △오행론과 근본 요소론 △불교와 도교 △동양학과 정치·경제·사회의 주제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광범위한 동양학을 일목요연하게 선별해 한국학, 유학, 도가, 선가, 오행론 등으로 세분화시켜 짜임새 있게 강의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화면과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한 삽화 및 도표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진행자 박씨는 “강사의 입담이나 재치로 대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며 “강사나 청중, 시청자들 모두가 몸으로 느끼고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진지한 강의를 펼치겠다”고 야심찬 의욕을 보였다. 이번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7시 전통수행연구원 강의실에서 공개 녹화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이들은 참가도 가능하다. 한편 ‘바로보는...’는 국내 방송이 끝난 뒤 일본어로 더빙해 일본 동경 북부 스마타가 지역의 케이블TV에 방영될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일기 쉽게 설명해 주는 동양학 강좌 프로그램이 인방 시청자들의 체념을 고정시키고 있다.

## 문화 단신

**LMB중창단 후원회원 모집**

불교음악을 사랑하는 젊은 불자 성악인들의 모임인, 혼성중창단 LMB싱어즈가 음악활동을 지원해 줄 후원회원을 기다린다. 후원회원에 가입하면 소식지를 통해 각종 연주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LMB싱어즈의 정기연주회 무료관람권도 지급한다. (02)358-4288

**중앙박물관 여성문화강좌**

국립중앙박물관은 여성들에게 우리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제7기 여성문화강좌를 개설한다.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해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전통문화’ ‘현대문화’ 등을 주제로 한 강의 및 ‘현장답사’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중앙박물관 섭외교육과로 수강신청서(현장 배부), 주민등록증, 증명사진 등을 제출해 신청한다. 문의전화 (02)398-5083

### 신간

####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전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김현준 지음 / 4x6 판 / 값 3,500원

- I.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 II.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에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해 보시기를!

###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x6 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  
4x6 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증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성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러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